

세갈래의 길, 하나의 여정... 호남여행 어때? 광주·전북·전남, 호남관광문화주간 공동 개최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추석 황금연휴 관광객 모객 총력 서울역 공동 홍보관 운영... 호남투어상품 등 관광 콘텐츠 선보여

'2025 광주방문의 해'를 선포한 광주시가 전북, 전남과 손잡고 '호남관광문화주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광주·전북·전남 시도지사 '호남권 경제동맹 선언' 이후 관광 분야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호남관광문화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9월29일부터 10월17일까지 3주간 '세 갈래의 길, 하나의 여정'을 슬로건으로 호남관광문화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장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를 비롯해 남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을 맞아 호남만의 특색있고 다채로운 관광콘텐츠 연계 등을 통해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교통거점인 서울역에 9월 29일부터 2주간 공동 관광홍보관을 운영해 광주만의 매력을 알린다. 광주의 통합 축제브랜드 'G-페스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가을 무등산', '미식광주' 등 핵심 관광콘텐츠 홍보활동을 전개해 귀성객과 가을철 나들이객을 주요 대상으로 모객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과 전남 역시 전주비빔밥 축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라국제수목비엔날레, 순천만정원 등 특색있는 대표 축제와 다양하고 매력있는 관광지를 함께 알릴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동홍보관에서는 광주·전북·전남이 하나투어와 함께 기획한 1박2일 특별 여행상품을 새롭게 선보여 3개 시도의 대표 관광지과 미식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여행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지와 특산물 등을 모티브로 만든 광주·전북·전남의 관광 굿즈 30여종을 전시, 현장 판매도 진행한다.

호남관광문화주간 동안 광주 미식주간, 전북 임실N치즈축제, 전남 남도미식박람회 등 호남의 맛을 주제로 한 시그니처 행사를 동시에 개최해 남도 미식의 정수를 체험해 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 미식주간은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양림·동명동과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일원에서 다양한 미식 체험과 투어, 공연, 할인 행사 등을 오는 9월27일부터 10월4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호남관광문화주간을 맞아 최근 주류 관광트렌드로 자리잡은 개별관광객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광 관계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 사업도 진행된다. '여기 어때'를 통해 7만원 이상의 숙박을 예약한 광주 방문객에 2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코레일 앱을 통해 KTX고속 열차와 숙소 할인혜택을 결합한 레일텔(Rail+Hotel)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관광주간 운영을 통해 호남권 연계 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선보여, '광주 방문의 해' 선포 이후 이어지고 있는 방문객 증가 추세를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와 전북, 전남이 한데 모여 추석 선물꾸러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호남의 맛과 맛을 한아름 가득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N회차 호남 나들이의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전북·전남과 함께 축제·투어상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구, 작은 정성 모아 '장학금 혜택' 늘렸다

2022~2024년까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세 소소한 후원 '인재육성 큰 희망'으로 이어져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 인재 육성을 위한 후원 손길과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 수 및 장학금 지원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5일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에 따르면 장학금 후원자의 작은 정성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정진하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소중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장학금 재원은 지난 2008년부터 구청에서 매년 남구장학회에 출연금으로 적립한 장학기금에 대한 이자와 민간 후원금

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특히 개인을 비롯해 기업체와 법인,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후원한 장학금은 가정 형편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큰 보탬을 주고 있다. 장학사업에 대한 호응은 최근 3년간 재단법인 남구장학회에서 관내 학생들에게 지원한 장학금 숫자와 장학금 규모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장학금 선발 현황을 보면 남구장학회는 지난 2022년에 장학금 5,050만원을 마련, 관내 고등학생 18명과 대학생 40명, 학교 밖 청소년 3명까지 총 6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는 장학금 재원을 5,500만원과 6,000만원까지 늘렸으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숫자도 67명과 74명으로 확대했다.

남구장학회는 수많은 후원자 덕분에 올해 29번째를 맞이하는 장학금 선발 과정에서 더 많은 장학생을 선발해 지역 인재로 육성할 방침이다.

선발 인원은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50명, 학교 밖 청소년 2명까지 통틀어 90명에 달한다.

이를 위해 장학금 지원 총액도 7,000만원으로 늘렸다. 대학생은 1인당 장학금 10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학생에게는 50만원을 제공한다. 남구장학회 제29회 장학금 선발을 위한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장학회 사무국(☎607-241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북구, 제6회 북구민의 날 행사 개최... '다시 도약하는 북구'

오는 26일 오후 5시 30분,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장에서 주민 화합의 장 열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오는 9월 26일(금) 오후 5시 30분부터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장에서 제6회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는 북구민의 날 행사는 '북구 온(ON) : 다시 도약하다'를 주제로 지난 수해의 아픔을 이겨내고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는 ▲식전공연 ▲기념식 ▲가을밤 음악회 순으로 진행되며 국민의례·내빈 소개·축사 등의 의전은 간소화해 주민 친화적으로 운영된다.

먼저 식전공연은 전남대 댄스동아리 뉴에라가 무대에 올라 본격적인 행사의 막을 연다.

기념식에서는 개회 선언을 비롯해 모범 주민 5명에게 표창이 수여되는 제 18회 구민상 시상식과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의 고향사랑기부금(1천만 원) 기탁식이 진행된다.

이어 북구합창단이 '북구, 다시 도약하다'를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합창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로는 북구의 비전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미래의 북구' 영상 상영된다.

기념식 이후 열리는 가을밤 음악회 무대에는 지역 가수들과 미스트롯3 출연 가수 '나영'의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돼 있어 주민들에게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할 전망이다.

부대행사도 다채롭다. 행사장 인근 중외공원 일원에서 사회적기업·자활기업 청년 창업가 생산 제품 판매 부스, 구정 정책 및 캠페인 홍보 부스, 기타 체험·이벤트 부스 등 약 50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수해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준비한



만골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회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광주 북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송현근 기자

광주시, 27일 '광주역 달빛마켓' 연다

'다시, 역전(Re: Station)' 주제 주민주도 지역활성화 축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오는 27일 광주역 일원에서 '2025 광주역 달빛마켓·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열리는 이 행사는 '다시, 역전(Re: Station)'을 주제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중심이 돼 광주역 일대를 공동체 기반의 지속 가능한 행복한 살터로 조성해 나가는 의지와 희망을 담았다.

광주역도시재생주민협의체, 신안동·중흥1동 주민자치회, 자동차거리상인회, 건축자재의거리상인회 등이 참여한 시민추진위원회가 직접 기획·실행·홍보까지 전

과정을 이끄는 시민주도형 축제로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의 끼와 재능을 뽐내는 무대인 제2회 역전가요제 ▲제품, 체험, 먹거리 부스로 구성된 달빛장터 플라마켓 ▲수공예품 등 지역 상인들의 특색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달빛팝업스토어 ▲한춤, 라인댄스 등 주민참여 공연 ▲도시재생 사업을 홍보하는 달빛역전갤러리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는 오전 10시 역전가요제 예선을 시작으로 열리며, 개막식은 오후 5시 30분 개최된다. 30여 개의 플라마켓 및 체험·먹거리 부스가 운영되며, 스탬프투어, 행운



권 추첨이벤트, 인생네컷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시민들에게 오감만족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승원 기자

서구, 주민밀접시설 안전대진단 본격 가동

10월31일까지 안전취약시설·건설현장 등 147곳 안전점검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0월31일까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5년 서구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급경사지·사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23곳 ▲공영주차장·교량·육교 등 교통시설 38곳 ▲어린이집·경로당 등 복지시설 9곳 ▲어린이공원·도시

관·체육시설 등 생활 및 여가시설 25곳 ▲관내 공공·민간 건설현장 25곳 등 7개 분야 147곳이다.

서구는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건축·전기·소방·건설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40명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시설물 균열 손상 여부 ▲소방·

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실태 ▲동절기 대설·한파 대비 안전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서구는 공무원, 주민감사관, 안전관리자문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구청장 직속 점검반 '안전이사대'를 가동해 관내 안전취약시설 1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과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